

# 프로폴리스의 위력

두리원 대표 김해룡  
한국자연 건강연구회 이사

-지난호이어서-

## 13. 자연과 건강

### 2. 한 민족이 우수한 것은 토양과 관계 있다.

세계에서 우수한 민족을 꼽는다면, 게르만 민족인 독일과 유대민족이다. 총 인구 수는 1천2백만명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면서 노벨상의 15%를 차지한 유대민족을 대표적인 민족으로 꼽는다.

독일 민족이 우수한 것은 그들이 즐기는 감자와 무관하지 않다. “감자는 땅에서 나는 황태자”라고 칭호를 붙일 정도로 좋아하고 감자를 많이 식용한다. 화학비료가 모든 작물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감자에 화학비료를 다소 사용하면 뿌리가 굵지 않고 잎만 무성하게 자란다. 감자에는 유기질 퇴비가 많이 들어 갔을 때 감자는 굵어 진다. 퇴비를 넣고, 재배한 식물에는 다양한 성분이 들어 있다. 감자에 많이 들어 있는 비타민 B2, 비타민 B6는 뇌의 피로를 풀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들은 열을 가한 음식물보다는 자연의 영양소를 그대로 갖고 있는 1차 식품을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음식 문화가 독일에서는 1세기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우리 나라는 10년도 되지 않는 짧은 역사다.

이런 음식문화가 독일을 우수 민족으로 키우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유대민족은 황산을 많이 만들어내는 육식을 배척한 음식 문화가 그들의 두뇌를 좋게하는 데 간접적인 역할이 되었다면 직접적인 원인은 교육에 있다.

유대인 부모들은 자식이 재벌의 총수가 되는 것보다 학자가 되기를 더 원했다. 그러한 마음 가짐이 있었기에 유럽 중세기 때만 해도 왕들 가운데는 문맹자가 있어도 유대인만은 남의 집 몸종이나 문지기라도 문맹자는 없었다. 이러한 교육열과 신이 택한 민족이라는 선민의식이 그들을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었다.

우리 민족도 세계적으로 우수 민족에 속한다. 그것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한 나라가 경제적인 성장을 이룩하려고 하면 축적된 기술이나 풍부한 지하자원이라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해방 이후에 남은 것이라고는 가난 뿐이었다. 우리 나라보다 못하는 나라는 아프리카 가나의 원주민 밖에 없었다. 그러한 민족이 반세기만에 중진국을 넘어선 것은 경제적 기적이다.

이렇게 되기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자식을 공부시키겠다는 뜨거운 교육열도 한 몫을 했지만,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알 수 있는 우수한 지능을 가진 민족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 지능을 갖게 한 모체는 바로 흙이다. 우리 나라 토양은 대량 생산되는 광물질은 없어도 다양한 분포도의 광물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광물질의 포본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 나라다.

5대 영양소 가운데 두뇌에 가장 필요한 영양소가 미네랄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인체에 필요한 미네랄의 수는 54가지이다. 이 가운데 1~2가지의 영양소가 부족해도 지능지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미국 분자교정의학의 학설이다. 우리 나라 토양에서 생산된 것을 어느 나라에 비교해도 맛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토양 속에 들어 있는 광물질 때문이고, 우리 나라 배추나 무가 일본 것보다 맛을 더 내는 것도 토양 속에 특수 미네랄이 더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 토양은 축복받은 토양이다. 이 토양이 황폐화 될 때는 국민의 건강을 잃게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국민의 지능도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 3. 토양의 황폐화와 질병

우리 조상들은 신토불이(身土不二)라는 말을 즐겨 사용해 왔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

었다고 한 것을 보면 토양과 인체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토양의 병은 인체의 병을 의미할 수 있다. 20년 전에 없었던 류마티스 관절염과 요통환자가 8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늘어난 것도 토양과 무관하지 않다.

### 1) 토양이 나빠진 시기

도시의 산업이 발달하자, 농촌의 유희 노동력이 도시로 유입되기 시작한 것이 70년도 중반이다. 농촌의 노동이 풍부할 때는 화학비료 대신으로 자가 생산한 퇴비를 많이 사용했지만, 인건비의 상승으로 퇴비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적자 영농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값싸고 사용하기 편리한 화학비료를 선호하게 되었다. 비료의 소비량이 1960년도에는 1,783톤이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1970년도에는 2배, 1980년도에는 9배, 1990년도에는 무려 14배로 늘어났다. 30년 사이에 이만큼 사용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토양의 지력을 높여주는 퇴비의 사용량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뜻이 된다. 화학비료를 가지고 농사를 지을 때는 퇴비를 만들어 사용하는 비용의 10분의 1만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으므로 300평당 2~3만원이면 가능하다. 그러나 유기농법에 농약을 덜 사용한 저공해 농산물을 생산하려고 하면 유통되는 농산물에 비하여 3배 정도는 값을 더 받아야 타산이 나올 수 있다.

### 비료의 소비량

연 대 별	비료 소비량(t)	1960년 100% 기준(100%)
1960년	1,719	100
1970년	3,719	200
1980년	16,132	900
1990년	25,082	1,400

(자료제공 : 농업진흥청)

정부가 원하는 토양의 유기질 함량 기준치는 3%이지만, 이것이 80년도에 들어와서는 1%선으로 떨어졌다. 남들보다 많은 퇴비를 사용했던 필자의 논

은 80년도에 토양검사를 하였을 때는 2.2%였던 것이 85년도에는 1.5%로 낮아졌다. 질소비료나 인산비료를 다량 사용하였을 때 토양 속에 유산이 남게 되고 염화칼륨을 많이 사용하면 칼륨은 흡수되지만 염화성분은 토양 속에 남게 되므로 토양을 산성화시킨다. 토양이 산성화되면 토양을 개량시켜 주는 지렁이도 생존하지 못하게 되고, 영양전달 매체에 큰 역할을 하는 미생물의 수효도 급격히 줄어든다.

### 2) 지력이 떨어질 때

저항력이 강한 사람은 1년 내내 감기 한번 앓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 혹 감기에 걸린다 해도 아스피린 한 두알로 쉽게 낫는다. 필자가 이 저항력의 원리를 알기 전에는 감기는 일년 중 수차례씩하였고, 한번 걸리면 1주일 이내에는 낫지 않는 체질이였다.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식물을 갖고 몸의 저항력을 강화시켰을 때 감기를 모르는 체질이 되었고, 감기를 해도 감기약 한 첩으로 쉽게 낫는 체질로 바뀌어졌다. 이것은 인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토양이나 곤충에도 적용된다.

우리집에서는 70년에는 80년까지 십년간 누에를 봄, 가을 8장씩(1장은 누에 2만 마리를 말한다) 쳤다. 이것은 잠업 농가로서도 큰 규모에 속한다. 누에를 사육할 때 봄에는 병 발생률이 없어도 9월에 사육하는 가을 누에는 병 발생률이 높다. 일년 평균치를 계산하였을 때 20~30%는 실패하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우리 집은 5% 미만으로 실패율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았다. 고치도 고치 견충이 두꺼워서 실이 많이 나오는 고치였기 때문에 등급 중에도 최고 등수를 언제나 받았다. 십 년간 아무 탈없이 잘된 것이 너무나 이상할 정도였다. 70년대까지는 잠업이 고소득을 올려주는 농업이 었지만, 80년에 들어와서는 고임금 때문에 수익성이 적어서 그만 두게 되었다. 누에농사 때는 잘된 원인을 알지 못했는데 수년 지나서(토양과 인체는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론을 체득함으로써 그 원인을 알게 되었다.

70년대는 새마을 사업으로 곳곳에 지붕개량사업

이 한창이었다. 집 한 채를 개량하면 트럭으로 두 세대 분량의 썩은 이영쇠가 나왔다. 우리집 것만 아니고 남의 집 것도 거두어서 모두 매년 뽕밭에 넣곤 했다. 2~3월 이른 봄에 땅이 안보일 정도로 넣어주면 잡초가 올라오지 않는다. 잡초가 없으므로 제초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단백질의 성분을 갖고 있는 질소질을 억제하므로 병충해도 없었다. 병충해가 없으면 농약이 필요없다. 매년 넣었던 짚들이 썩으니 유기질이 풍부했고, 거기에 농약 성이 없으니 지렁이들이 많이 서식해 토양은 글자 그대로 옥토가 되었다. 여기서 자란 뽕잎은 싱싱하여 잘 시들지도 않고, 뽕잎 자체도 두꺼웠다. 이런 무공해 뽕잎을 먹은 누에들은 병에 대한 저항력이 강했기 때문에 무름병, 뽕뽕이 병(뽕뽕해서 썩는 병) 같은 것이 없었고, 최고 영양가치가 있는 뽕잎을 먹었기 때문에 질 좋은 실을 생산할 수 있었다. 지금 우리 나라의 농사는 주는 농사법이 아니고 빼앗는 농사법으로 경작한 지 20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토양이 병들대로 병들어있다. 토양의 병은 그 위에서 자란 식물로 이어지고 결국은 그 식물을 먹는 사람에게까지 전가되므로 그것이 20년 전에 없었던 여러 가지 병들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 3) 류마티스 관절염 유발

우리 인체의 필요한 무기질수는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54가지이지만, 토양의 원소를 모두 가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식물은 태양과 물만 있으면 광합성 작용에 의한 비타민을 생산해 내지만, 미네랄은 합성되지 않는다. 토양 속에 미네랄 성분이 없으면 식물에도 그 성분은 없게 된다. 시금치는 철분이 많이 들어 있는 식물이지만, 철분이 없는 토양에서 재배되었을 때는 시금치 속에 철분은 하나도 없다.

미국의 분자교정의학에서는 인체에 한 두가지의 영양소가 부족해도 여러 가지 병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학설을 주장하고 있다. 뼈의 주성분은 미네랄이다. 뼈에 필요한 미네랄 가운데 한 두가지만 부

족해도 뼈는 약해질 수 있고, 그 원인에 의해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요통을 유발시킬 수 있다. 그것은 관절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고질적인 성인병에도 해당된다.

## 미국과 한국 토양의 관절염 발병 비율

국명 \ 토양과 관절염	토양의 유기합량(%)	관절염 발병(%)
미국 1950년 이후	1-1.5%	1-2%
한국 1980년 이후	1-1.5%	1-2%

미국은 1950년부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많아졌고 한국은 1980년부터 많아진 것에 착안하여 작성한 것임

미국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많아지기 시작한 것은 1950년부터이고, 우리 나라는 1980년부터이다. 미국보다 30년이 늦어진 것은 화학비료의 사용량이 미국보다 30년이 늦어진 데 있다. 미국에서 화학비료를 다량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40년 부터이고, 우리 나라는 1975년부터이다. 미국이나 한국이 다같이 화학비료를 다량 사용하기 시작한지 십년째부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필자는 1961년에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기 시작했다. 병원에 입원을 했지만 그때는 그같은 질병을 가진 환자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러한 병이 지금은 너무나 많아졌고, 한양대 부속병원 류마티스 과에만도 접수된 환자는 3,762명(93년 10월 통계)이나 되어서 진찰을 받는데 2년 반을 기다려야 할 정도라고 한다.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 있는 병이다.

- 다음호에 계속 -